

“스페인 합창단의 ‘임 행진곡’ 광주 무대 설렌다”

우리 노래 알리는 밀레니엄합창단 임재식 지휘자...19~20일 ACC 공연

1999년 합창단 결성...초등 교과서에 ‘아리랑’ 수록 성과 “광주 상징 ‘임 행진곡’ 세계화 위해 밝고 신나게 부를 것”

“꼭 한 번 서보고 싶었던 무대이기에 광주 공연을 앞둔 지금 이 순간 말할 수 없이 설렙니다. 광주 시민들께 감동의 연주를 선사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 꿈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단원 전원 이 스페인 프로 성악가들로 구성된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 합창단은 국내를 제외하면 한국 민요와 가곡을 부르는 세계 유일의 합창단으로 정평이 나 있다.

임재식(59) 예술감독이 이끄는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이 첫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예술극장 무대에 선다. 오는 19일 오후 7시 30분과 20일 오후 3시.

지난 1999년 임 감독에 의해 창단된 밀레니엄 합창단은 국내 팬들에게도 많이 알려질 만큼 음악성을 인정받고 있다. 푸른 눈의 외국인들이 정확한 발음으로 ‘밀양 아리랑’, ‘산촌’, ‘거북도 뱃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우리 국민들은 물론 세계의 많은 이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아직 국내 입국 전인 임 감독은 지난 4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광주 시민들의 문화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다. 음악가로서 한국의 문화 도시는 단연코 광주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임 감독은 “밀레니엄 합창단은 국내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우리 노래를 해외에 보여주기 위해 만든 단체”라며 “주로 스페인을 중심으로 활동해 오고 있지만, 국내 입국 기회가 마련되면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공연의 필요성을 타진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아시아문화전당 공연도 임택 동구청장과 만남을 계기로 성사됐다. 당초 공연이 빨리 진행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잠시 미뤄졌다.

임 감독은 대구 출신으로 부산에서 자라 서울에서 학교를 나왔다. 올해로 스페인으로 건너간 지 벌써 39년이 된다. 어머니가 전라도 출신이라며 광주와의 인연을 드러낸 그는 자칭 “전국구”라고 언급했다.

임 감독은 이번 광주 공연을 위해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 5·18민중항쟁, 광주를 상징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기로 한 것.

“‘임을 위한 행진곡’은 미안마, 홍릉 등에서 불리며 어느새 세계 민중화를 대표하는 곡이 됐습니다. 외국 합창단이 이 노래를 광주에서 부른다는 건 대단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음악가의 관점에서 투쟁적이고 장엄한 분위기보다는 조금 바뀐 곡보다 밝고 신나는 곡으로 부를 예정입니다.”



임재식 예술감독(맨앞줄 가운데)과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

〈임재식씨 제공〉

그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민중화를 이룬 한국에서 웅변의 ‘할렐루야’처럼 밝고 신나는 분위기로 불린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되면 세계적인 곡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번 밀레니엄 합창단의 ‘신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또 다른 관점에서의 세계화의 첫걸음일 수도 있겠다”는 게 임 감독의 생각이다.

합창단은 1부 공연에서 ‘베싸페 무초’ 등 스페인 가곡을, 2부에는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올라 ‘엄마야

누나야’, ‘울릉도 트위스트’ 등 한국 가요를 부른다.

그는 “우리 노래가 세계화되려면 외국인, 특히 프로 성악가들의 이해 많이 불려야 한다. 지난해 스페인 초등 교과서에 ‘아리랑’이 실린 것은 밀레니엄 합창단의 23년간 결과물이라고 본다. 앞으로도 살아있는 동안 우리 노래를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계속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 조선대 발전기금 5000만원 기부

광주문화신탁(이사장 고영철·사진)은 지난 4일 조선대학교에 ‘중앙도서관 스마트업 발전기금’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광주문화신탁은 지난해 8월에도 조선대학교에 ‘창업어부바 장학기금’ 50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고영철 이사장은 “지역 인재양성의 요람인 조선대에 기부금을 기탁한 것이 신탁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기부가 조선대 중앙도서관이 발전할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993년 11월 북구 문화동에서 창립한 광주문화신탁은 올해 창립 29주년을 맞아 광산구에 걸쳐 본점과 지점 8곳을 두고 있다. 매년 당기순이익의 7%가량을 사회환원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상무수치과 고려인마을 어린이합창단 후원



상무수치과(대표원장 김수관)는 최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현미)를 통해 ‘고려인마을 어린이합창단 및 아동옹호사업’ 후원금 700만원을 전달했다. 후원금 700만원은 고려인마을 어린이합창단 아동·청소년들의 정기공연 및 단복 구입비, 간식비를 포함한 광주지역 아동옹호사업에 지원된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 제공〉



전남대병원, 미안마 난민에 식수 정화제 지원

전남대병원(병원장 안영근·왼쪽)이 군부 쿠데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안마 난민들에게 지난 해 성금을 모아 전달한데 이어, 이번엔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물품을 지원한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5일 병원 행정동 2층 접견실에서 안영근 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와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김민석 위원장, 이태훈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미안마 쿠데타 난민 물 정화제 전달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번 행사에서 전남대병원은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 병원성 미생물에 대해 효과적으로 살균소독 처리가 가능한 식수 정화제 3만개(347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한편, 전남대병원은 지난해 5월 직원 1300여명이 모은 성금 3500만원을 미안마 의료진들에게 전달했으며, 미안마 난민을 지원하고 있는 태국 매타오병원과 협약을 맺어 난민 의료지원 활동 등을 함께 할 예정이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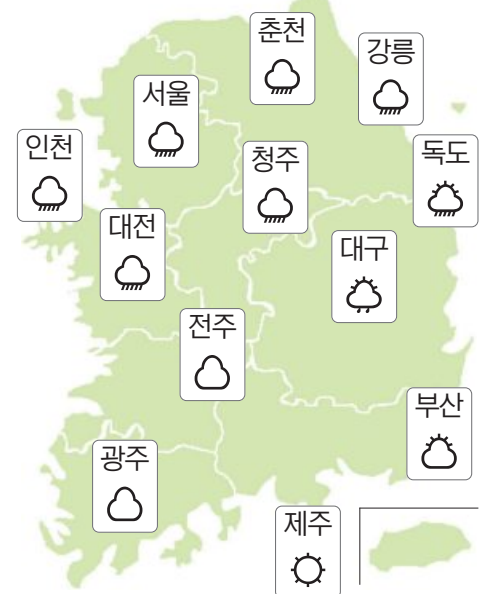
해돋이	05:47	달뜨기	16:16
해지기	19:29	달지기	01:00

소나기에도 폭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간당 20~30mm 소나기 내리는 곳 있겠다.

광주	흐림	27/32	보성	흐림	26/32
목포	구름많음	27/31	순천	구름많음	26/33
여수	구름많음	27/31	영광	흐림	27/31
나주	흐림	26/32	진도	구름많음	27/31
완도	맑음	27/33	전주	흐림	27/32
구례	소나기	25/32	군산	비	27/30
강진	구름많음	26/32	남원	소나기	25/31
해남	구름많음	26/31	축산도	구름많음	25/30
장성	흐림	26/31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파고 (m)	파고 (m)
서해 남부	앞바다	0.5~1.5	0.5~1.5	0.5~1.5	0.5~1.5
	면바다(북)	1.5~2.5	1.5~2.5	1.5~2.5	1.5~2.5
	면바다(남)	1.5~2.5	1.5~2.5	1.5~2.5	1.5~2.5
남해 서부	앞바다	0.5~1.0	0.5~1.0	0.5~1.0	0.5~1.0
	면바다(서)	1.0~2.0	1.0~2.0	1.0~2.0	1.0~2.0
	면바다(동)	1.0~2.0	1.0~2.0	1.0~2.0	1.0~2.0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3:35	09:49
	15:36	23:08
여수	11:08	05:01
	--:--	18:30

◇ 생활지수

식중독	자외선	미세먼지
위험	높음	좋음

◇ 주간 날씨

9(화)	10(수)	11(목)
26/31	26/30	26/31
12(금)	13(토)	14(일)
26/32	26/32	26/32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김중열·김혜숙씨 아들 영웅군, 강홍재·고(故) 박혜정씨 딸 수빈양=20일 낮 12시 30분. 드래프트빌딩 2층 CN홀. 062-228-0000.

알림

▲광주 북구민을 위한 개인 무료 법률상담소=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저소득층, 영세민, 교도소 복역자, 사회취약계층자 무료상담 010-6444-8572.

▲광주시·전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무료 상담=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지원을 위한 무료상담 1670-9512.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숙식제공,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

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청소년전화 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학대 신고-연제 등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을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 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활을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여,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일 오후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모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플랫폼창업희망자 교육생 모집=스마트폰 사용 가능자 수시모집, 5-6명 이면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플랫폼창업동호회 062-511-0030.

▲산청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모집=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남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산청동 대광로제비마을

파트 후문 80미터 010-4622-7838.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 모집=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010-5522-9700.

▲인생이모작 카운슬러 모집=인생2막 생애 재설계, 은퇴 신중론 상담에 관심 있거나 교육경험이 있는 48-58세 남녀 모집, 실버체조, 치매예방 놀이, 노후생활 관련 강사 등, 한국50+ 희망발전소 010-2626-5018.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